

이용재의 잡문 노트

영화 <블라인드 사이드>와 미식축구의 이해

이용재 (칼럼니스트)

미국에서 9월은 미식축구의 달이다. 대학과 프로 양쪽 모두의 시즌이 개막되기 때문이다. 얼마 전 <스피드>로 영원히 기억될 산드라 불록 주연 <블라인드 사이드>가 개봉됐다. 이 영화의 개봉에 은근히 놀랐는데,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이 없는 스포츠인 미식축구(American Football)를 소재로 했기 때문이다. 게다가 원작인 책은 야구 이야기를 통해 일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<머니볼>의 저자, 마이클 루이스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.

사실 <블라인드 사이드>라는 제목조차,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. 표면적으로 미식축구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. 직사각형의 경기장을 반으로 나눠 각각 한 팀씩 나눠 가진다. 야구처럼 공격과 수비를 한 선수가 하지 않고, 공격수와 수비수가 따로 있어 역할이 다르다. 그래서 한 팀이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팀의 수비수가 그들을 막는다. 상대방 영역의 맨 끝 칸에 공을 가지고 들어 가면 득점으로 인정되는데, 이를 위해 패스, 또는 공을 손에 들고 뛰는 '러닝(running)'으로 전진한다.

공격하는 팀은 네 번의 기회 안에 수비수를 뚫고 10야드(약 9m)를 전진해야만 한다. '쿼터백(Quarterback)'은 공격수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역할로, 보호를 위해 쓰는 헬멧에 내장된 교신장치를 통해 코칭스태프와 전략 및 전술에 대한 의사소통을 나누고, 그를 바탕으로 스스로 패스를 할지 아니면 러닝을 전담하는 '러닝백(running back)'에게 공을 넘겨줄지를 결정한다. 영화의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는 쿼터백이 패스를 할 경우 던지는 손 반대편을 일컫는 단어다. 그쪽으로 달려오는 수비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. 즉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쪽, 왼손잡이일 경우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수비수를 볼 수 없고, 그로

인해 패스 직전 수비수의 습격에 취약해진다.

1985년 11월, 미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워싱턴 레드스킨즈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큰 사고가 벌어진다. 자이언츠의 수비수 로렌스 테일러(Lawrence Taylor)가 레드스킨즈의 쿼터백 조 타이스만(Joe Theismann)을 덮쳐 유혈 낭자한 골절상을 입힌 것이다.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것은 물론, 전성기를 구가하던 조 타이스만은 이 부상으로 인해 그대로 선수 생활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다. 이를 계기로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로부터 침입하는 수비수를 막아줄 '태클(Tackle)' 포지션을 강화하기 시작한다. 쿼터백을 덮치기 위해 달려오는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체력 조건이 좋되, 그러한 체력 조건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빠르기를 갖춘 유망주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.

영화의 주인공 마이클 오어(Michael Oher)는 바로 이러한 체력 조건을 갖춘 유망주이지만 알코올, 마약 중독자

인 어머니를 비롯,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알아차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유년시절을 보낸다. 이러한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리 앤과 셴 투오이(Leigh Anne & Sean Tuohy) 부부가 그가 기본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것은 물론, 이후 가족의 울타리 안에 편입해 미식축구의 간판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.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4점 만점에 채 1점도 못 넘기던 그는 양부모의 도움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대학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볼티모어 레이븐스(Baltimore Ravens)에 1차 지명, 수천 명의 대학 선수들 가운데 스물세 번째로 선택을 받아 작년까지 이후 4년간 전 경기에 태클로 출장하고 있다. 🍌

